

6. 고려시대의 불화

1. 고려시대 불화의 대표작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
불화: 불교 관계의 그림. 의례·도상 같은 격식에 따른 그림.

벽화, 탕화(幀畵), 경화(經畵), 판화

● 문헌상의 고려불화 기록

-徐兢, 『宣和奉使高麗圖經』, 興王寺에 송나라 相國寺로부터 본 따온 벽그림이 있었다. 廣通普濟寺에서 5백나한의 도상을 보았다고 기록.

-『東文選』 제65권, <禪源寺 毘盧殿丹青記>: 丁卯年 겨울에 북편 벽에 55명의 知識의 화상을 그리고 … 부처님·天神·神人·귀신 등이 담벼락과 난간과 창살 사이에 죽 늘어서 ….

-宋 광약허 『도화견문지』 “…고려 그림은 기교가 정밀하다…”

-元 탕후 『화감』 “…고려의 관음상은 심히 교묘하고 섬려하다…”

※화사하고 섬려한 고려 불화의 미는 궁정취미, 귀족취미로 담고 다듬은 세련된 미의 세계. 현세의 고뇌를 잊고 내세의 영화를 그 속에 투영하려는 애절한 고려인의 정취와 신앙의 상징.

● 탕화(幀畵)

-아미타불화가 가장 많이 그려짐;관경변상도, 아미타존상도, 아미타래영도 등

*정토삼부경(관무량수경, 무량수경, 아미타경)

-14세기 작품이 대종을 이룸

-크기는 대개 1미터 조금 넘는 크기

-귀족적 취향; 화려하고 정교하며 금색찬란

아미타불존상도(阿彌陀佛尊像圖)

독존도: <아미타여래좌상> 1306, 일본 東京 根津美術館

구존도: <아미타여래구존도> 1320, 일본 松尾寺

아미타불 래영도(來迎圖)

독존도: 자회(自回)필, <아미타래영도> 1286년(충렬왕12년), 일본은행소장

삼존도: <아미타삼존래영도> 호암미술관

수월관음도(水月觀音圖)

-서구방(徐九方) 필, <수월관음도> , 1323년, 일본 泉屋博古館

-혜허(慧虛)필, <수월관음도>, 동경 淺草寺

지장보살도(地藏菩薩圖)

-독존입상: <지장보살도>, 東京 根津美術館

나한도(羅漢圖)

-<오백나한(제170혜군고존자)> 국립중앙박물관

● 사경변상도(寫經變相圖)

-<화엄경 행원품 변상도> 1350, 국립중앙박물관

한국회화사

【참고자료】

김정희, 『불화-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』, 돌베개, 2009
문명대, 『한국불교미술사』, 한연, 1997